

## 지정대사 1 (소은 역)

수린 : (학습지에 적힌 이름을 보고) 소은이구나? 3학년인데 키가 큰 편이네.

소은 : 나이로는 4학년이에요. 학교를 많이 못 다녀서 3학년 수학 하는 거예요.

수린 : 아, 그래?

소은 : 수학 어려워요. 하나도 모르겠어요.

수린 : 나도 예전에 수학이 켈 싫더라. 자,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? 한번 해볼까?

(수린은 소은에게 가르쳐주고, 소은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문제를 풀면서 한팔에는 인형을 안고 있다.)

수린 : 잘했어. 매일 조금씩 문제를 풀면 금방 실력이 늘 거야. 그런데 이 인형 좀 못생겼다 그치?

(수린이 인형을 만지려고 하자 소은이 획 잡아당긴다.)

소은 : 우리 엄마가 준 인형이에요. 안경원송이, 필리핀에선 아주 유명하대요.

수린 : 아, 그렇구나. 미안. 안경원송이라 눈이 땡그랗구나.

소은 : 우리 엄마도 안경 썼어요.

수린 : 그래? 엄마도 지금 한글 수업 받고 계시겠네?

(소은 갑자기 인형을 끌어안고 고개를 떨어뜨린다.)

소은 : 엄마는 필리핀에 갔어요.

수린 : (조심스러운 말투로) 그럼, 아빠랑 사니?

소은 : (목소리를 낮추어 주변 눈치를 살피며) 목사님 집에서 살아요. 근데 아빠가 갑자기 와서 나를 또 데리고 갈지 몰라요.

(수린은 안쓰러운 듯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.)

수린 :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가 필리핀이시구나.

소은 : 아뇨. 엄마 아빠 모두 필리핀인이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. (잠시 한숨을 내쉬고)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, 나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요.

## 지정대사 2 (소은 역)

(한 소녀가 종이쪽지를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리로 온다.)

소은 : 저기 죄송한데 혹시.. 어? 선생님?

수린 : 어! 넌 그때..! 이름이 소은이던가?

소은 : 네, 맞아요. 소은이. 근데 왜 그 다음 봉사 때 안 왔어요? 다른 선생님들은 다 왔던데.

수린 : 나는 그냥, 그날만 따라가 본 거였어.

소은 : (인형을 꼭 안으며) 그럴 줄 알았어요. 한번 잘하는 척하기는 쉽지만 진짜 봉사는 어려울 거 같아요.

(수린은 인형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는 소은을 잠시 바라본다.)

소은 : 여기 이 주소요, 이 동네 맞지요? 우리 아빠가 여기로 이사했대요.

수린 : 뭐? 필리핀 사람이라면? 혹시 너희 아빠 이름이 호세?

소은 : 네! 어떻게 아세요?

수린 : 호세 아저씨에게 이렇게 큰 애가 있었어? 저 집이야, 따라 와.

소은 : 아니, 지금 아빠 만날 건 아니고요. 그냥 집만 알아 놓으려고요.

(소은은 다리에 털썩 주저앉는다. 수린도 잠시 망설이다 소은 옆에 앉는다.)

수린 : 아빠랑 같이 지내지 않았구나.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냐?

소은 : 모르겠어요. 목사님 집에 있는 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.

수린 : 왜? 아빠랑 사이 안 좋아? 음.. 사실 우리 엄마도 베트남..

소은 : 알아요! 선생님 엄마도 베트남 사람인거. 그때 그 강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.

수린 : 뭐? 씨니가? 나 참! 남의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?

소은 : 선생님 정도면 한국인으로 잘 사는 거 아닌가요?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밖에 모르는데, 사람들은 저더러 필리핀으로 가래요.

(소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이고, 수린은 그런 소은을 가만히 바라본다.)

소은 : 저도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사정하는 거 듣고 처음 알았는데요. 저는 법적으로요,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요.

(안타깝게 소은을 바라보는 수린)

소은 :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도 아니라는 거잖아요? 학교도, 목사님이 사정사정해서 날 받아주는 학교가 있으면 다닐 수 있는 거고요.